

제조업 절반 “시장 포화지만 신사업 전환 한계”

ECONOMY

2025년 8월 5일 화요일

■ 광주상의, 산업환경 변화 대응 전략 조사

확신 부족·자금 등 경영 악화·아이템 부재 이유 66% “자체 R&D로 신사업 추진”...정책 지원을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광주·전남 지역 제조업체들이 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자금 부족, 판로확보 애로 등이 꼽히면서 관련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체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대응 전략 파악을 위해 133개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신사업 추진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6%는 기업 주력사업(제품)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 ‘성숙기(시장 포화 상태)’로 평가했다.

또 ‘쇠퇴기(시장 축소)’에 해당한다고

본 기업도 24.8%에 달했다.

시장 내 경쟁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경쟁 격차가 사라져 치열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7.9%로 절반을 넘었고, ‘경영업체가 턱막까지 추격 중’이라는 응답도 21.1%에 달해 전반적인 경쟁 심화 양상이 확인됐다.

시장 정체 또는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신사업 착수 여부에 대해 56.4%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기업은 43.6%에 그쳤다.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시장성 및 사업성에 대한 확신 부족’(37.4%), ‘자금 등 경영상황 악화’(33.3%), ‘신사업 아이템 부재’

(20.0%) 등으로 조사됐다. 불확실성과 자금 부담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신사업에 착수한 기업 중 65.5%는 ‘자체 R&D’를 통해 신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9.3%는 외부 협력(Collaboration), 1.7%는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어렵다’는 응답이 48.3%로 가장 많았고, ‘성과 기대’ 22.4%, ‘내·외부 요인에 따른 추진 차질’이 각 10.3%로 나타나 성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신사업 추진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

으로는 ‘추진자금 부족 및 조달 애로’(57.9%)가 가장 높았고, 이어 ‘판로확보 및 유통경로 개척 애로’(46.6%), ‘신사업 시장환경 불확실성’(43.6%), ‘기술개발 및 제품 완성도 부족’(23.3%) 등 순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 제조업체들이 현 시장 상황과 신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시장성·인력 등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인해 신사업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사업 발굴 및 사업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중장기적 기업 역량 강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산수동 무등산 지역주택조합 건설공사 조감도

무등산 지역주택조합 착공

시공사 한양건설로 변경 84㎡형·113㎡형 240세대

광주 동구 ‘무등산 지역주택조합’이 8월 착공에 나선다.

4일 동구에 따르면 무등산 지역주택조합은 동구 산수동 104-3번지 일원(옛 호남아파트)에 건축면적 5471.06㎡, 연면적 5만2391.81㎡ 규모로 지하 5층~지상 13~20층, 4개 동으로 계획돼 있다.

조합은 시공사인 한양건설과 함께 오는 2027년 11월까지 총 240세대(84㎡형 181세대·113㎡형 59세대) 규모의 주택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착공 준비에 들어갔다.

조합은 지난 6월 시공사였던 남양건설(주)을(주)한양건설로 변경하고, (주)건축사 사무소테크뱅크를 감리자로 확정했다.

이후 6월 27일 착공 신고서를 동구에 접수하고 현재 미비된 서류를 보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이달 중 주택건설사업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무등산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최종 사업계획승인일은 지난해 1월 19일이었다.

해당 부지는 장원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안전 통행이 가능하고, 인근에 제2순환도로가 있어 광주 시내외를 오가는 교통망도 갖췄다.

동구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서류를 보완하도록 요청했다”며 “보완 서류를 확인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착공 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송대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4일 협회 임원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건설업계, 현장 중대재해 근절 ‘총력’

시·도회 긴급대책회의...실효성 갖춘 안전체계 구축 약속

광주·전남지역 건설업계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4일 협회 임원진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의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고,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건설협회 광주시회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도 이날 박경재

회장 주재로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 방향 동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건설현장 재해 근절을 위해 실효성은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근로자 인식전환, 안전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제로 실현을 위해 회원사 안전관리교육, 사례집 배포 등 지속적인 지원활동도 다짐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업계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고 산업 전반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야”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경총, 중기에 커피차·문화행사 선물

조직적응 시범 프로그램...이직방지 등 효과 기대

#.신입직원 A씨는 입사 초기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있었던 커피차 행사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팀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타 부서 동료들과도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게 됐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7월 한 달간 진행한 ‘아침식사 및 문화행사 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4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광주 북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내일이 행복할 AI·반도체 기반 일자리 잡고(Job Go)’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업 참여기업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시범 프로그램은 신입직원의 조기

이직 방지와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총 8개 기업에는 이동식 커피차를 이용한 아침식사 제공, 2개 기업에는 단체 영화관람 행사를 지원했다.

특히 커피차 행사는 사무실 앞에서 신입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참여해 샌드위치와 커피를 나누며 자유롭게 교류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이솔루션 관계자는 “신입직원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커피차 이벤트를 통해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대화를 나누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영화관람 행사도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

정명시스템(주) 관계자는 “사내에서 형식적인 대화만 오가던 관계가 영화관람을 계기로 자연스러운 일상대화로 이어졌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조직 내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신입직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영화관람에 참여한 A씨는 “입사 후 동료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문화행사 덕분에 서로를 더 잘 알게 됐다”며 “회사에 애정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신입직원이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안착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신입직원 이직 방지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아침식사 및 문화행사 지원 프로그램’ 모습.

동행 지역상공민
광남일보 | 시민참여위원회

파인트리 요양원 ☎ 062) 236-3816
광주 동구 남계길 23(내남동)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넓고 쾌적 최신식으로 신축 고급요양원
- 축락의사(월2회), 외부강사(월18회)
- 상차림 및 행사(생신 및 어버이날, 명절 등)
- 맞춤형 전문케어(재해, 폐손, 간헐성, 루피로사병, 요양호사21)
- 물리치료 기기 다수 다양, 편리하게 이용
- 넓은 공동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대 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치매, 노인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그 외 65세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아침체조(매일)

간호사 케어

신축 고급 실내(물리치료)